400호 발간사

월간「산업보건」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산업보건의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나눌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록의 민족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유산은 현재 432건(2017년 기준)입니다. 그중 우리나라의 기록유산은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등 16건이나 됩니다. 세계 4위, 아시아 1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역사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소한 것들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 기록들은 특별합니다.

월간「산업보건」은 33여 년간 생생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담아 왔습니다. 또한, 현장의 산업보건·안전 관리자, 학교,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디지털 혁명으로 종이책은 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월간지가 디지털 매체로 넘어가거나 절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월간「산업보건」은 여전히 실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종이책만이 가진 힘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제지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종이 매체 호감도' 중 '종이책을 선호한다'라는 응답자가 88.4%로 곧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종이책은 아직 사랑받고 있습니다.
월간「산업보건」은 소중히 책장에 꽂혀있기 보다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합니다. 필요한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부분에 필기를 하고, 접고, 발췌하여 사용되길 바랍니다. 때론 필요한 내용은 찢어 따로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종이책이 가진 장점이니까요.

물론 월간 「산업보건」을 디지털화시키는 작업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만드는 디지털화 역시 '기록'의 한 부분이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으며, 스캔한 예전 자료들은 전산화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느새 발간한 지 400호입니다. 월간 「산업보건」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산업보건의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나눌 것입니다.
그 기록은 쌓여 21세기 산업보건 시대사 연구의 근본 자료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산업보건 역사를 연구하려면 필수로 연구할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기록이 가진 힘을 믿습니다. 기록하는 것만이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오늘'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힘이 될 테니까요.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백헌기